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이중 매개효과*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Happiness on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Baby Boomers

정 유 수**

이 영 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Yusoo Jeong

Youngso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초록)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400명의 베이비붐 세대(남녀 200명씩)였으며, 그들은 온라인상에서 모집되었다. 그들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 자살 생각, 가족지지, 그리고 행복감 수준을 측정했으며, 그 측정한 자료는 Hayes의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도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이중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매개효과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보다 더 우선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예방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주제어 : 베이비붐, 삶의 의미, 노인 자살, 가족지지, 행복감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사업(전북대학교 심리학과)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o. 4199990714213)

** 주저자: (우)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심리서비스 전문가 양성단 연구교수 정유수 (e-mail: curer@jbnu.ac.kr)

*** 교신저자: (우)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이영순 (e-mail: leeys@jbnu.ac.kr)

(Abstract)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support and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in life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baby boomer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400 baby boomers (200 men and 200 women) who were born in between 1955 and 1963, and recruited through an online panel provider. The levels of the meaning in life, suicidal ideation, family support, and happiness for them were measured,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Hayes PROCESS macro.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amily support was a significant mediator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in life and the suicidal ideation. Happiness was also a significant mediator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family support and happiness had a double medi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while family support took precedence over happiness in the mediating effects.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suicide prevention for the Korean baby boomers.

Key words : Korean baby boomers, Meaning in life, Suicide in older adults, Family social support, Happiness

I. 서 론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인구의 14%(약 713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집단을 일컫는다(KOSIS, 2020). 이들은 2020년부터 매년 70만 명 이상이 고령층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또한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전문성을 보유하고 높은 학력 수준을 지닌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경험하는 경제적 및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S. Kim, 2021).

베이비붐 세대가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소득절벽(income crevasse)인데, 그 주된 이유는 부모 돌봄과 자식 양육이라는 이중 부양 부담으로 인해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가 부족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Ham & Nam, 2018).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는 과거 세대와 다르게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기존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지만, 참여도가 높을수록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도 더 높아지는 등 정신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S. Kim, 2021). 과거 여느 세대보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가 컸던 세대는 노년기에 접어들어 생산적 기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존재감 상실과 같은 심리적 위협을 경험하기도 한다(H. Kim, 2018).

이와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으로 이어져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Ku & Song, 2020). 특히 노년기에 겪는 스트레스는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높은 편이다(Choi, 2010). 한국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살핀 메타분석에 의하면, 심리적 요인이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심리적 기능 손상의 주요인인데, 스트레스가 심한 노인들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노인과 비교할 때 자살 생각이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Lee & Jeong, 2016). 실제 2019년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6.6명이었는데(KOSIS, 2019), 이는 OECD 노인 자살률 평균 17.2명보다 매우 높은 수치였다(WHO, 2021). 이처럼 높은 자살률은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측면의 개입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에 자살 생각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 중 하나인 삶의 의미는 전 생애에 걸쳐 주체적으로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과정이다(Baumeister, 1991). 한 개인이 실존에 직접 관련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실패하면 좌절하게 되고, 이 좌절은 실존적 공허 즉 존재에 대한 무의미를 경험하게 한다(Frankl, 1988). 곧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저하로 이어져 쉽사리 자살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Joo, Lee, & Hyun, 2012). 실제로 일반인 집단과 임상 집단 모두에서 삶을 유지하려는 이유가 많을 때 자살 생각을 더 적게 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Kleiman & Beaver, 2013). 또한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더 적응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Halama & Bakosova, 2009),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Mascaro & Rosen, 2006).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및 자각

된 사회적 지지나 자존감이 더 높은 편이다(Choi, 2011).

노년기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해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즐거움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독이나 무가치감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의미를 잃게 하면서 노인들을 자살로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임과 동시에 자살 생각을 예언하는 지표가 된다(Lew, Huen, Yu, Yuan, Wang, Ping et al., 2019). 이렇듯 삶의 의미는 노년기 건강한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대상 삶의 의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삶의 의미 발견 및 추구를 통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과정에 가족지지와 행복감이라는 심리적 기제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가족지지를 설정했던 주된 이유는 은퇴 등 다양한 이유로 공식적 사회관계망이 축소되는 노년기에는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Yoon, 2016). 비공식적 관계망 중에서도 가족은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이며, 노인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Kwon, Kim, Kim, & Park, 2012).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한 교류의 폭 감소 및 개인주의 성향 증대로 인한 가족 결속력 저하는 노인에게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무관

심 속에 방치된 노인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다(T. Kim & Jang, 2021; Lee, 2016).

그 반면에 가족지지는 자살 생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Koh & Hong, 2009). 물론 가족지지의 영향은 고령자들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 Kim & Kwon, 2012). 가족지지는 성인들에게 유의한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irmingham, Uchino, Smith, Light, & Butner, 2015). 예를 들면, 가족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Holtum, 2018; Romero, Riggs, & Ruggero, 2015). 또한 노년기에 와서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일반적인 사회적 지지처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및 사회적 부담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며(Lee & Kim, 2007), 주관적 행복감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Jeong & Kim,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노년기에 갓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가족지지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근래까지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살아왔기에 경제적 기여가 멈춘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지지의 지각 여부는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삶의 의미 부여를 통해 심리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환경에 처할지라도 이를 행운이라 지각하는 경향이 있

다(McAdams, Diamond, Aubin, & Mansfield, 1997). 따라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할수록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크게 지각한다는 의미이다. 실제 Krause(2007)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들은 가족을 포함한 타인이 미래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노년기에 안정감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삶의 의미가 높은 노인은 자신이 가진 지지 자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이는 자살 생각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다.

두 번째 매개변인인 행복감은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인데(Caykus & Eryilmaz, 2020), 이는 개인의 삶에서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만족과 긍정적인 상태를 말한다(Diener, 1984). 행복감은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스트레스 감소나 심신의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harmila, 2020).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높은 행복감은 자살 생각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행복감은 자살 생각에 매개효과가 있었으며(Park, 2014), 만성질환으로 시달리면서 평소 자살을 자주 생각하는 환자들에게도 행복감은 자살 생각의 수준 감소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rsch, Duberstein, & Unütze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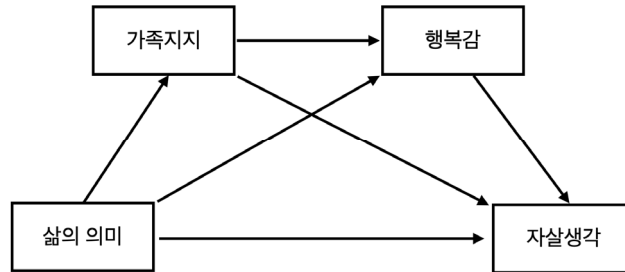
삶의 의미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의미를 더 강조하면서 추구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Baum & Stewart, 1990; Reker & Wong, 1988; Steger, Oishi, & Kashdan, 2009; Van Ransst & Marcoen, 1997), 그 의미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도 높아진다고 보고한다(Debats, Drost, & Hansen, 1995; Zika & Chamverlian, 1992). 또 삶의 의미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력은 역경이나 위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삶의 의미가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Park & Folkman, 1977). 개인이 처한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더라도 그 상황에서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고통에 대처하고 극복할 힘을 얻게 되면서 행복감이 증가하게 된다(Kim, Ryu, & Choi, 2011).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든 상태라도 행복감 수준이 젊은 시절에 비해 낮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한국 노인의 경우 전반적으로 행복감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15세 이상 일반 국민 약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복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행복감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6.56점에 불과했다(NAFI, 2021).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행복 수준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더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중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중년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줄어들다가 고령층이 될수록 안정감을 느끼면서 다시 행복 지수가 상승하는 U자형 곡선 그래프를 보였으나, 한국의 경우 그래프

가 꺾인 뒤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UN, 2020).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행복감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지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노인들에 비해서도 행복감 수준이 더 낮음을 보여준다. 낮은 행복감 수준은 자살 생각의 증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한국 노인의 행복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Nam & Cho, 2022).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이나 임상 장면에서 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자살 생각과의 관계를 살폈는데,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근래 막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전술한 바처럼 기존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매개효과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이중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1)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은 각각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2)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은 순차적으로 이중 매개하는지를 살피는 것이었으며, 그 모형은 <Figure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Figure 1〉 Conceptual model of mediation

II. 방 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1955년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400명(남성 200명, 여성 200명)의 베이비붐 세대였다. 그들의 나이는 평균 64.7세($SD=4.54$)로 남성은 65.5세($SD=4.65$) 그리고 여성은 63.9세($SD=4.31$)였으며, 조사일 당시까지 퇴직한 자의 비율은 약 56.7%($n=227$)이었던 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자의 비율은 약 43.3%($n=173$)이었다. 그들 중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비율은 약 3.8%($n=15$), 종교가 없다는 응답 비율은 약 36.5%($n=146$)이었다. 한편 교육 수준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율이 26.2%($n=105$), 대졸 57.8%($n=231$), 그리고 대학원 졸업은 16.0%($n=64$)이었다.

자료 수집은 설문대행업체 (주)인바이트 패넬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조사는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응답할 때 소요된 시간은 10분 정도였다. 대행업체에는 남녀 동수로 200여 명씩의 응답 자료를 의뢰하여

모두 400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응답자에게는 대행업체에서 보상으로 점수 부여가 이루어졌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였는데, 설문지는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7문항(성별,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나이, 직업 유무, 종교형, 그리고 교육 수준), 독립변인 삶의 의미에 관한 10문항, 매개변인 가족지지에 관한 10문항, 매개변인 행복감에 관한 14문항, 그리고 종속변인 자살생각에 관한 5문항이었다. 연구 변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삶의 의미

삶의 의미는 Won, Kim, 그리고 Kwon(2005)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이 도구는 Steger(2005)의 삶의 의미 척도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것인데,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등 존재 의미를 묻는 5문항 그리고 “나는 내 삶의 목적 혹은 소명을 찾고 있다.” 등 그 의미 추

구를 묻는 5문항의 도합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언제나 그렇다’(7)까지]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으로($n=400$) 나타났다.

2) 자살 생각

자살 생각은 Shin, Park, Oh, 그리고 Kim (1990)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이 도구는 Harlow, Newcomb, 그리고 Bentler(1986)가 개발한 SIS(Suicide Ideation Scale)를 한국어로 변안한 것인데,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등 자살 생각에 대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9($n=400$)로 나타났다.

3)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Kang, Seo, 그리고 Lee(2001)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나는 내 가족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등 가족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묻는 8문항 그리고 “가족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부담스러워 한다.” 등 가족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묻는 2문항의 도합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항상 그렇다’(1)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까지]였으며, 부정적인 부분을 묻는 문항의 채점은 역으로 이루어

졌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지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4($n=400$)로 나타났다.

4) 행복감

행복감은 Yang(1998)의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했다. 이 도구는 “나는 어떤 활동 또는 활동 자체에 잘 몰두한다.” 등 몰입감을 묻는 3문항, “나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 등 자신감을 묻는 5문항,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다.” 등 즐거움을 묻는 3문항 그리고 “나는 항상 진실 되게 살아간다고 느낀다.” 등 자아실현감을 묻는 3문항의 도합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태는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계수는 .93($n=400$)로 나타났다.

III. 결 과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 사이에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하기 전에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토대로 자료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매개효과의 분석은 “PROCESS macro Model 6”을 활용했는데(Hayes, Montoya, & Rockwood, 2017), 부트스트래핑 표집은 5,000번으로 설정했으며 그리고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 값의 상한 및 하한 범위에 0의 포함 여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Hayes & Scharkow, 2013).

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0과 7.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그 변인들의 평균은 삶의 의미가 5.027($SD=1.024$), 자살 생각 1.640($SD=.844$), 가족지지 3.903($SD=.863$) 그리고 행복감 3.560($SD=.661$)이었다(<Table 1> 참조). 역시 <Table 1>에는 그 변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도 제시했는데, 삶의 의미는 자살 생각($r=-.267,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 가족지지($r=.446, p<.01$) 그리고 행복감($r=.64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자살 생각은 가족지지($r=-.421, p<.01$) 그리고 행복감($r=-.310,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던 반면, 가족지지는 행복감($r=.44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매개효과 분석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와 행복감의 이중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는 <Table 2> 및 <Figure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삶의 의미는 가족지지($b=.376, p<.001$)에 정적인 영향, 가족지지는 행복감($b=.145, p<.001$)에 정적인 영향, 그리고 행복감은 자살 생각($b=-.185, p<.001$)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직접 및 간접적인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했다. 이중 매개 경로에서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의 직접 효과와 이중 매개의 간접효과를 합한 총 효과는 $-.219(-.2981 \sim -.1415)$ 였는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의 직접 효과는 $-.014(-.1124 \sim .0844)$ 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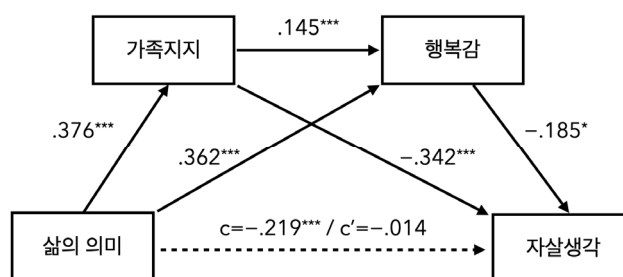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study variables and their basic statistics

Variables	Meaning in life	Suicidal ideation	Family support	Happiness
Suicidal ideation	-.267**			
Family support	.446**	-.421**		
Happiness	.646**	-.310**	.440**	
<i>M</i>	5.027	1.640	3.903	3.560
<i>SD</i>	1.024	.844	.863	.661
Skewness	-.670	1.448	-.822	-.255
Kurtosis	.777	1.577	.242	.236

** $p<.01$

〈Table 2〉 Results of mediation analyses

Path			<i>b</i>	<i>S.E.</i>	<i>t</i>	95% <i>CI</i>	
						<i>lower</i>	<i>upper</i>
Meaning in life	→	Family support	.376	.037	9.940***	.3016	.4504
Meaning in life	→	Happiness	.362	.027	13.445***	.3095	.4156
Family support	→	Happiness	.145	.032	4.544***	.0825	.2082
Meaning in life	→	Suicidal ideation	-.014	.050	-.280	-.1124	.0844
Family support	→	Suicidal ideation	-.342	.050	-6.776***	-.4412	-.2428
Happiness	→	Suicidal ideation	-.185	.077	-2.397*	-.3369	-.0333

* $p < .05$ *** $p < .001$.

〈Figure 2〉 Results of the mediation model

〈Table 3〉 Total,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mediation model

Path	<i>Effect</i>	<i>Boot S.E.</i>	95% <i>CI</i>	
			<i>lower</i>	<i>upper</i>
Total effect (Meaning in life → Suicidal ideation)	-.219	.039	-.2981	-.1415
Direct effect (Meaning in life → Suicidal ideation)	-.014	.050	-.1124	.0844
Indirect effect Meaning in life → Family support → Suicidal ideation	-.128	.029	-.1935	-.0779
Meaning in life → Happiness → Suicidal ideation	-.067	.036	-.1440	-.0017
Meaning in life → Family support → Happiness → Suicidal ideation	-.010	.006	-.0240	-.0003

한편 단순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삶의 의미 → 가족지지 → 자살 생각’의 간접효과 경로는 $-.128(-.1935 \sim -.0779)$ 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 행복감 → 자살 생각’의 간접효과 경로 역시 $-.067(-.1440 \sim -.0017)$ 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 → 가족지지 → 행복감 → 자살 생각’의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는 $-.010(-.0240 \sim -.0003)$ 으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차적 이중 매개효과 검증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최근 노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노인 세대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겪는 편이다. 예를 들면, 생산적 기여의 중단으로 인한 존재감 상실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러한 경험은 심각한 우울감으로 이어져 자살을 생각하게 만든다(Ku & Song, 2020). 자살 예방이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자살 생각에 미치는 요인들의 연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가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매우 높았는데,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의 부분 및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주요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들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논의해본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삶의 의미 수준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살 생각을 덜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지지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잘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그로 인해 자살 생각의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그리고 노인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H. Kim & Kwon, 2012; Koh & Hong, 2009). 즉,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 수준과 함께 가족지지 수준을 높이는 개입을 통해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Krause, 2007).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상학 연구 진행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된 중년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삶의 의미 발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베이비붐 세대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Jeong & Lee, 2021; Seo & Park, 2007).

둘째, 베이비붐 세대에게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의 관계에 행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행복감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의미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자살 생각의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이

는 삶의 의미가 자살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행복감 지각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Debats et al., 1995; Zika & Chamverlian, 1992), 행복감이 자살 생각에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등과 맥을 같이 한다(Hirsch et al., 2009; Park, 2014). 즉,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 수준과 함께 행복감 수준을 높이게 된다면 자살 생각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도 잘 받고 또 이로 인해 행복감을 지각하면서 자살 생각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삶의 의미 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삶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가족들로부터 지지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행복감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가 감소하게 된다. 가족지지와 행복감이 자살 생각에 함께 매개할 때 가족지지가 선행한다는 결과는 가족지지가 행복감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Jeong & Kim, 2015).

본 연구의 결과는 삶의 의미가 자살 생각으로 가는 과정에서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개입뿐만 아니라 은퇴로 인한 존재 가치 상실을 극복하게 해 줄 가족지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족지지를 증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노인 자살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고찰에 의하면(Kwon & Choi, 2019) 노인 대상 상담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두 편에 불과하며(C. Kim & Yeo, 2009; E. Kim, 2013), 또 이들도 대인관계 교류에 대한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이라서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과정에서의 이론적 기틀이나 체계적인 구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나 확산 면에서 미흡한 것이어서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근거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가 중요하다(Kwon & Choi, 2019).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개입할 때 행복감이 증진되어 자살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고(Choi, 2011), 또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이나 사회적 관계 감소 등에 의한 소속욕구의 좌절(thwarted belongingness)이나 다른 사람, 특히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인식(perceived burdensomeness)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Joiner, 2005). 물론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할 때 가족지지와 가족관계 이외에도 삶의 의미를 찾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지지는 물질적인 도움이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동만이 아니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정보나 충고처럼 보이지 않는 형태로도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프로그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Desrosiers, Bourbonnais, Noreau, Rochette, Bravo, & Bourget, 2005).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지지를 얻기가 어려운 고령자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가족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아예 홀로 지내는 고령자들에게 가족지지 관련 프로그램의 자살 방지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와 보건소나 건강증진센터에서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지만(Park & Kim, 2009; Park & So, 2004),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베이비붐 세대에게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또 프로그램 내용이 가족지지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계층으로부터의 지지가 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홀로 살거나 가족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공동 주거 형태를 구축해서 살아가는 방안의 활성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Shin & Lee, 2017). 물론 이와 같은 방안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지만, 범죄 예방이나 외로움 해소, 건강관리 등에서 긍정적 효과도 지닌다(Kerr, Rosenberg, & Frank, 2012).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베이비붐 세대는 직업과 소득의 단절로 인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느끼면 행복감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Park & Park, 2017). 행복감 저하는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면서 최소한의 소득 보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직종에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교류 지속이나 지지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경제적 위험을 막아주면서 행복감을 얻게 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Chun & Kim, 2017; Raventós, 2007).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 증진뿐만 아니라 가족지지와 행복감 수준을 높이는 개입도 효과적임을 밝힌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한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자료는 모두 온라인 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거나 그와 같은 접근에 관심이 없는 베이비붐 세대가 포함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가족지지가 주요한 연구 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지지의 기본인 배우자나 다른 가족하고의 동거 여부나 교류 정도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의미와 자살 생각 사이의 관계에서 두 요인, 즉 가족지지와 행복감만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자살 또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예, 재정이나 건강 상태 또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Bae & Lee, 2018; Park, Oh, & Gu, 2017). 이와 같은 제한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부분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조만간 고령층의 주축이 될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생각 감소를 위해 삶의 의미가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는 점이다. 곧 본 연구의 결과는 초고령 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베이비붐 세대의 정신건강 유지에 관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가족 지지와 행복감 증진을 통해 자살 예방에 이르게 하는 두 요인은 소속욕구의 좌절과 짐이 된다는 생각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Joiner, 2015). 즉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늘어나거나 고독사도 증가하는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 예방 방안을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T. Kim & Jang, 2021).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Bae, E., & Lee, M. (2018). The effect of stress and hopelessness 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urpose in life.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4 (1), 187-209.
- Baum, S., & Stewart, R. (1990). Source of meaning through the lifespan. *Psychological Report*, 67 (1), 3-14.
- Baumeister, R. (1991). *Meaning of lif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irmingham, W., Uchino, B., Smith, T., Light, K., & Butner, J. (2015). It's complicated: Marital ambivalence on ambulatory blood pressure and daily interpersonal functioning.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9 (5), 743-753.
- Caykus, E., & Eryilmaz, A. (2020).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secondary and primary capacities among emerging adults in the context of positive psychotherapy. *Eurasian Journal of Research in Social and Economics*, 7 (5), 319-331.
- Choi, J.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Focus on the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4, 233-253.
- Choi, M. (2011).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mental health, perceived social support &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ccording to purpose in lif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6 (2), 363-377.
- Chun, M., & Kim, J. (2017). The effects of its proportions of different sources of old age income on older people'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2 (1), 283-303.
- Debats, D., Drost, J., & Hansen, P. (1995). Experiences of meaning in life: A combin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6 (3), 359-375.

- Desrosiers, J., Bourbonnais, D., Noreau, L., Rochette, A., Bravo, G., & Bourget, A. (2005). Participation after stroke compared to normal aging.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7, 353-35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3), 542-575.
- Frankl, V. (1988).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Rev. ed.). New York: Plume.
- Halama, P., & Bakosova, K. (2009). Meaning in life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coping. *Studia Psychologica*, 51 (2/3), 143-148.
- Harlow, L., Newcomb, M., & Bentler, P.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 (1), 5-21.
- Ham, C., & Nam, Y. (2018).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baby boomers: Focused on the Chungbuk area.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8 (2), 27-58.
- Hayes, A., Montoya, A., & Rockwood, N. (2017). The analysis of mechanisms and their contingencies: PROCESS vers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ustralasian Marketing Journal*, 25 (1), 76-81.
- Hayes, A., & Scharkow, M. (2013). The relative trustworthiness of inferential tests of the indirect effect in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Does method really matter? *Psychological Science*, 24 (10), 1918-1927.
- Hirsch, J., Duberstein, P., & Unützer, J. (2009). Chronic medical problems and distressful thoughts of suicide in primary care patients: Mitigating role of happi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 (7), 671-679.
- Holtum, S. (2018). Inclusion of family and parenthood in mental health recovery. *Mental Health and Social Inclusion*, 22 (3), 114-120.
- Jeong, Y., & Kim, T. (2015). The effect of reciprocal providing family support and non-family support on subjective happiness of retired elder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50, 41-68.
- Jeong, Y., & Lee, Y. (2021). Development and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on discovering meaning of life for psychological crisis overcoming of middle-aged m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3 (1), 189- 217.
- Joiner, T.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o, Y., Lee, S., & Hyun, M. (2012). The moderation effect of meaning in life, gratitude, and the relational differences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 (4), 1175-1192.
- Kang, H., Seo, Y., & Lee, H. (2001).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prospect of rehabilitation nursing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4 (2),

- 240-247.
- Kerr, J., Rosenberg, D., & Frank, L. (2012). The role of the built environment in healthy aging: Community design,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7 (1), 43-60.
- Kim, C., & Yeo, I. (2009).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s to decrease the level of depression and prevent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 (9), 111-124.
- Kim, E.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transactional analysis group program for elderly suicide prevention.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ing Education*, 2 (1), 1-17.
- Kim, H. (2018). Analysis of perception pattern about social participation of baby boomer gener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9 (3), 115-145.
- Kim, H., & Kwon, J. (2012).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life and suicide ideation: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avoidance coping sty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2), 589-606.
- Kim, K., Ryu, S., & Choi, I. (2011). The effect of meaning in life on happiness and health in late lif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 (2), 503-523.
- Kim, S. (2021).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s affecting happiness between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elderly gener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 (4), 591-602.
- Kim, T., & Jang, N. (2021). A study on a lonely death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coping plans.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41, 261-291.
- Kleiman, E., & Beaver, J. (2013). A meaningful life is worth living: Meaning in life as a suicide resiliency factor. *Psychiatry Research*, 210 (3), 934-939.
- Koh, S., & Hong, H. (2009).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 (11), 97-124.
- KOSIS (2019). *Causes of death statistics in 2020*.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 KOSIS (2020). *Estimate of the future population in 2021*. Daejeon, Korea: Statistics Korea.
- Krause, N. (2007).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support and meaning in life. *Psychology and Aging*, 22 (3), 456-469.
- Ku, J., & Song, I. (2020).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s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 (3), 301-310.
- Kwon, T., & Choi, H. (2019). A systematic review of the suicide prevention program for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Stress*

- Research*, 27 (1), 53-63.
- Kwon, J., Kim, D., Kim, K., & Park, S. (2012). Structural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stress,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Sciences*, 23 (3), 3-25.
- Lee, M., & Kim, N. (2007).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the old. *Korean Academy of Clinical Social Work*, 4 (1), 161-176.
- Lee, S. (2016). Legal consideration on solitary deaths: Focused on socio-legal discussions on solitary deaths of the aged.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16 (4), 59-88.
- Lee, S., & Jeong, G. (2016). Meta-analysis of suicidal ideation i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 (2), 1023-1033.
- Lew, B., Huen, J., Yu, P., Yuan, L., Wang, D., Ping, F., et al. (2019).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xiety, stress, hopelessness, subjective well-being, coping styles, and suicide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PloS One*, 14 (7) [doi: 10.1371/journal.pone.0217372].
- McAdams, D., Diamond, A., de St. Aubin, E., & Mansfield, E. (1997). Stories of commitment: The psychosocial construction of generative l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3), 678-694.
- Mascaro, N., & Rosen, D. (2006). The role of existential meaning as a buffer against stres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46 (2), 168-190.
- NAFI. (2021). *Korean happiness survey*. Seoul, Korea: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 Nam, K., & Cho, H. (2022).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happi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3 (2), 228- 236.
- Park, C.,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 (2), 115-144.
- Park, J. (2014).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 o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subjective happiness. *Mental Health & Social Work*, 42 (1), 201-224.
- Park, J., Oh, U., & Gu, S. (2017). Indebtedness and mental health: Focusing o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9 (2), 171-190.
- Park, M., & Park, M. (2017).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nd human capital on the future happiness level of baby boomer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5 (3), 157-178.
- Park, O., & Kim, Y. (2009). Effect of applying a social support program in the operation of an health promotion center for elde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1 (2), 184-194.
- Park, O., & So, H. (2004). Model development of an elderly health promotion center: The effect of a social support program at a

- community health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 (5), 781-790.
- Reker, G., & Wong, P. (1988). Aging as an individual process: Toward a theory of personal meaning. In J. Birren, & V. Bengtson (Eds.), *Emergent theories of aging* (pp. 214-246). New York: Springer.
- Romero, D., Riggs, S., & Ruggero, C. (2015). Coping, family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student veter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2 (2), 242-252.
- Raventós, D. (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London: Pluto Press.
- Sharmila, K. (2020). Role of happiness in health of elderly. *Indian Journal of Gerontology*, 34 (4), 544-552.
- Seo, S., & Park, A. (2007). The effects of reality therapy in groups on death anxiety, meaning of life, and well-being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 (1), 107-130.
- Shin, E., & Lee, Y. (2017). The community design research to develop social relationships for a single-person household: Focused on the cases of shared residence for a single-person household.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5 (1), 55-68.
- Shin, M., Park, K., Oh, K., & Kim, J. (1990).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 (1), 1-19.
- Steger, M. (2005).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 measure of eudaimonic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USA.
- Steger, M., Oishi, S., & Kashdan, T.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1), 43-52.
- UN. (2020). *World Happiness Report*. <https://worldhappiness.report/ed/2020>
- Van Ranst, N., & Marcoen, A. (1997). Meaning in life of young and elderly adults: An examination of the factorial validity and invariance of the life regard index.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 (6), 877-884.
- Yang, M. (1998). 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 of cognitive-affective states scal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9 (2), 113-123.
- Yoon, S. (2016). Impact of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on problem drink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 (4), 11-17.
- WHO (2021). *WHO mortality database*. <https://www.who.int/data/data-collection-tools/who-mortality-database>

Won, D., Kim, K., & Kwon, S. (2005).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0 (2), 211-225.

Zika, S., & Chamberlain, K. (1992). On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in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3 (1), 133-145.

Received: July 11, 2022

Revised (first form): August 1, 2022

Revised (final form): August 16, 2022

Accepted: August 18, 2022